



중국

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'음악증권거래소', 그 실현가능성은?

북경사무소

■ 현황

- 중국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하여 만들어진 '음악저작권 증권거래소'가 생겨 큰 주목을 받고 있음

■ 주요 내용

- 동 거래소의 운영자인 AIP trade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음악저작권의 소유자는 음악 주식을 발행하여 사전에 저작권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음. 즉 '예매'의 방식으로 미래에 얻을 수익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게 됨
- 홈페이지에 따르면 음악저작권이 회사의 주식과 유사하게 공개된 시장에서 매매가 이뤄지며, 중개를 담당하는 음악 증권거래소는 일정한 비용을 '상장수수료'로 수취하는데, 상장수수료는 발행된 음악 주식의 5%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함
- 또한 이용자들이 거래를 할 경우 거래당 0.5%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, 이를 현금으로 인출할 경우 은행 또한 일정한 수수료를 수취한다고 함



○ 그럼 어떻게 권리를 보호하고 위험을 방지할 수 있으며, 발행과 관련한 안전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가? 이와 관련하여 이번 음악 증권거래소의 창시자인 짜오이텐(赵易天)은 다음과 같이 밝힘

- “음악 증권거래소라는 플랫폼을 통하여 뮤지션들은 노래 한 곡의 미래 수익에 대한 용자, 즉 사전에 수입을 얻을 수 있음. 음악 애용자와 다양한 팬클럽 나아가 투자자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뮤지션의 음악에 투자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자신의 투자한 곡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수입을 공유하고 나아가 잠재적인 위험을 서로 분산해서 부담함. 특히 뮤지션과 이용자들이 공동으로 주식의 가격을 정하는 메커니즘을 통하여 적절한 시장가격을 책정할 수 있음”

○ 문제는 이러한 음악저작권 증권화를 통한 시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임

○ 물론 동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술과 인터넷 기술을 응용하여 음악 저작물이 정품인지에 대한 확인, 나아가 거래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중국에서 아직까지 음악저작권의 증권화 업무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며, 현재 중국의 관련 법률에 따르면 증권 발기인에 대한 규정이 매우 엄격하고, 오직 금융기관만이 자신의 자산을 증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임

■ 평가

○ 현재 중국 음악산업에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투자금 유치와 관련된 문제이며, 음악에 대한 홍보는 여전히 대형 음반 제작사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신인 뮤지션이 창작한 우수한 음악작품들이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임



- 당장 중국 당국이 상기 거래소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, 즉 이를 허가할 것인지 또는 현행 법률에 근거하여 불허할 것인지를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, 그 시도는 매우 참신하다고 할 수 있음. 하지만 설사 동 거래소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개시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유명세가 없는 무명 뮤지션의 경우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전망됨

■ 출처

- 소후망(搜狗网)
- http://www.sohu.com/a/255952692_116132